

#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3. 11. 08. WED



#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 2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 3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후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5장 25~29절

다 같이

-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 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의 최대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리라”

그러나 부활은 명확히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 첫째, 영혼의 부활이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경우에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일평생 살다가 그 인생을 끝마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중생이라고도 하며 거듭났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는 영적인 부활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영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5절 “금홍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죽은 육체를 살리셨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도 결국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 죽은 상태에 있으나, 그 복음을 접한 사람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현재 부활했으므로, 이 영을 잘 관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기도를 통해 더욱더 영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 둘째,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앞서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육적인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그 육체가 죽어 땅에 묻히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본문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이 있음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심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죽음을 당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부활하실 때에도 꼭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래 영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종말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15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해서 운명하실 때에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모든 것이 인간은 장차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지나치게 쫓는 삶이 아니라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과 개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셋째, 성도만이 두 가지 부활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위에서 우리는 영혼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이 두 가지 부활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다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의 부활, 곧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로 부활하긴 해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특별히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도 하게 되는데, 육체의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특별히 성경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부활을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한 자란 단지 도덕적으로 악한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은 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악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부활을 경험치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육체의 부활이 기쁨이요 축복이지만, 악인에게는 오히려 부활이 두려움이요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육체의 부활이 기쁨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부활을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합시다. 그 소망은 생명의 소망이요, 기쁨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아직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속히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기쁨과 축복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영을 통해 육의 부활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 나눔 ----- 다 같이

- 1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후 나의 삶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 2 아직까지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써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 중보기도 ----- 형제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 다 같이

- 1 한국의 최해성 목사님과 산위예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목회자가 양성되고 교회가 세워진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2 필리핀의 윤상현 선교사님과 아가페 교회에 인권, 영권, 물권이 충만하여져서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 3 형제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 마무리 기도 -----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바로 알고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